

한국어 복합 조사의 개념 정립

유경화

To cite this article : 유경화 (2014) 한국어 복합 조사의 개념 정립, 한중인문학연구, 43, 101-120

① earticle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학술교육원은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earticle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www.earticle.net

한국어 복합 조사의 개념 정립

유경화*

국문요약

본고는 현대 한국어의 복합 조사와 관련한 문제를 검토하여 복합 조사의 개념을 정립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현대 한국어에는 둘 이상의 조사가 선행어에 이어서 쓰인 경우가 많이 있다.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구성을 복합 조사라고 부른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조사와 조사의 결합은 조사와 결합하는 선행어가 실사이어야 한다는 조건에 위배된다는 문제가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기술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형태, 통사, 의미적으로 복합 조사의 특성을 밝히고, 나아가 복합 조사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조사 연속 구성, 복합 조사, 단일 조사, 형태소 분석, 문법화

〈목차〉

1. 서론
2. 복합 조사와 관련한 몇 가지의 문제점
3. 복합 조사 개념의 정립
4. 결론

* 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수료

1. 서론

본고는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 복합 조사와 관련한 몇 가지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복합 조사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착어로서의 한국어는 어휘 범주인 체언이나 용언 어간에 문법 범주인 조사나 어미가 붙어 쓰인다. 그리고 조사나 어미는 그 수도 많을 뿐더러 기능이나 의미도 다양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본고는 이 중에서 조사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체언 뒤에 붙어 쓰이는 조사는 하나 뿐만 아니라 둘 이상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둘 이상의 격 형태가 연속하여 사용되는 경우를 복합격으로 규정한 연구라든가, 격조사와 보조사 또는 보조사와 보조사의 상호 통합 관계를 규명한 연구 등이 여기에 속한다.

(1) 가. 인수를 처음 만난 것은 대구에서가 아니고 광주에서이다. (김진형 2000:63)

나. 오늘부터는 자네 차례이다.

(1가)에서 인수를 처음 만난 것을 나타낼 때 처격조사 ‘에서’와 ‘가’가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1나)에서 자네 차례는 ‘오늘부터’인 것을 나타낼 때 보조사 ‘부터’와 ‘는’이 겹쳐 쓰이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 (1가, 나)의 ‘에서가’, ‘부터는’은 격조사 ‘에서’와 ‘가’, 보조사 ‘부터’와 ‘는’의 복합 형식이다. 많은 학자들은 이와 같은 형식을 복합 조사라고 부른다.

한편 ‘명사+조사’ 구성의 성격을 결정짓는 핵이 조사라는 인식이 싹트면서 (1)의 ‘에서가’, ‘부터는’과 같은 둘 이상의 조사가 연속한 구성이 진정한 조사들끼리의 통합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의문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복합 조사(합성 조사, 겹토씨)라고 불러 온 것들이 실제로 아직 복합 조사로 굳어지지 않은 단순 통합형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견해들이다. 김진형(2000:63)에서는 격조사와 격조사가 연속될 경우 먼저 이루

어진 격조사구는 문장 안에서 일반적인 명사구와 비슷한 취급을 받는다고 하였다. 즉 (1가)의 ‘대구에서’와 ‘광주에서’는 명사구처럼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1)의 ‘에서가’, ‘부터는’은 하나의 조사로 쓰이지 않고 단순히 조사와 조사가 이어서 쓰인 것은 다음과 같은 예문을 통해 입증될 수도 있다.

- (1) '가. 인수를 처음 만난 것은 대구에서 아니고 광주에서이다.
나. 오늘부터 자네 차례이다.
(1) "가. 인수를 처음 만난 것은 대구가 아니고 광주이다.
나. 오늘은 자네 차례이다.

예문 (1) '과 (1) "은 예문(1)이 변형된 것이다. 이처럼 ‘에서가’가 쓰인 자리에 ‘에서’나 ‘가’로 실현되어도 문장은 여전히 성립하고, ‘부터는’이 쓰인 자리에 ‘부터’나 ‘는’으로 실현되어도 문장은 여전히 성립한다. 즉 ‘에서가’나 ‘부터는’은 완전히 하나의 조사로 굳어지지 않고 결합 성분으로 나뉘서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에서가’의 의미는 단순히 격조사 ‘에서’와 ‘가’의 합으로 보이고, ‘부터는’의 의미도 단순히 보조사 ‘부터’와 ‘는’의 합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에서가’와 ‘부터는’은 단순히 조사들이 이어서 쓰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분석되어야 한다.

- (2) 가. [[대구에서]가]
나. [[오늘부터]는]

(2)처럼 ‘에서가’, ‘부터는’과 결합하여 쓰인 구성의 분석은 ‘에서’와 ‘가’, ‘부터’와 ‘는’이 먼저 결합하고 다시 명사에 붙어 쓰인 것이 아니라 일단 ‘에서’, ‘부터’가 명사 뒤에 붙어 쓰여 하나의 구를 만든 다음에 다시 ‘가’, ‘는’이 결합한 것이다.

하지만 다음 예문 (3)에서 쓰인 ‘만큼도’, ‘이나’, ‘보고’, ‘밖에’의 상황은 (1)과 다르다.

- (3) 가. 눈곱만큼도 아쉬울 거 없어. (이희자·이종희 1998:129)
 나. 내 동생은 무엇이나 다 잘 먹는다.
 다. 다 내가 잘못된 일인데 누구보고 원망하겠나.
 라. 경수는 공부밖에 모르는 암전한 학생이었다. 《고려대》¹⁾
 (3) '가. *눈곱만큼 아쉬울 거 없어.
 나. *눈곱도 아쉬울 거 없어.

(3가)의 '만큼도'는 전혀 아쉽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의 형태소 분석은 '만큼+도'로 할 수 있지만 (3)' 처럼 '만큼'이나 '도'로 나뉘서 쓰일 수 없다. 그리고 이의 의미는 단순히 '만큼'+ '도'의 합이 아니라 '매우 적은 정도'란 의미를 새롭게 드러낸다. 즉 '만큼도'는 '에서가', '부터는'처럼 단순히 조사와 조사가 이어서 쓰인 것이 아니다. 이는 이미 구성 성분으로 나뉘서 쓰일 수 없는 하나의 조사로 굳어진 형태를 보인다. 그리고 (3나, 다, 라)의 '이나', '보고', '밖에' 등도 (3가)의 '만큼도'처럼 형태소 분석이 가능하지만 의미적이나 통사적으로 나뉠 수 없는 하나의 조사이다. 본고는 (3)과 같은 문장에서 쓰인 형태를 복합 조사로 본다.

그동안 조사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지만 복합 조사에 대한 논의는 그리 많지 않았다. 더구나 복합 조사의 개념에 대해서는 통일된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고 2장에서는 기존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복합 조사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3장에서는 복합 조사의 개념을 정립하기로 한다. 4장은 결론으로서 논의를 요약한다.

2. 복합 조사와 관련한 몇 가지의 문제점

최현배(1937/1980), 김상대(1993), 김진형(2000), 한용운(2004), 이규호(2007) 등에서 복합 조사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이 진지하게 검토된 바 있다.²⁾ 이와 같

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편(2009) 《한국어 대사전》이다. 앞으로 《고려대》로 줄여서 표기하기로 한다.

2) 김상대(1993)에서는 소위 복합 조사는 이론적으로 복합어가 될 수 없음을 밝혔다. 김진형(2000)에서는 조사가 통합된 구성의 구조분석에 기반하여 공식적으로 '조사끼리의 상호

은 기존 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합 조사 개념의 사용에 있어서는 아직도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복합 조사의 성립 가능성에 관한 문제이다. 복합 조사를 연구하는 초기 단계에는 이를 조사와 조사의 연속 형식으로 인식하였다. 최현배(1937/1980: 702-705)는 두 개의 조사가 연속할 때 두 조사가 우선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것으로 보았다. 이것을 토씨와 토씨가 어울려서 된 ‘벌린 겹씨’라고 하였는데, 바로 복합 조사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연속한 두 조사를 단어 형성법의 차원에서 복합어로 규정한 것이다. 그의 견해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계에 널리 통용되어 왔는데, 그동안의 이러한 사정이 사전 편찬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4) 가. 둘 이상의 조사가 모여서 된 조사. ‘보다는’, ‘까지를’, ‘에서도’ 따위가 있다. =겹토씨. 《표준》³⁾

나. 둘 이상의 토씨가 결합한 것. =복합 조사. 《큰사전》⁴⁾

(4가)는 《표준》에서 ‘복합 조사’ 항목의 뜻풀이 내용을 가져온 것이다. (4나)는 《큰사전》에서 ‘겹토씨’ 항목의 뜻풀이 내용을 옮긴 것이다. 현행 학교문법에 따라 조사는 단어로 대접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전에 오를 자격을 가진다. 그러나 (4가)에서 제시한 ‘보다는, 까지를, 에서도’는 두 개의 조사가 모여서 된 조사이지만 사전에 오르지 않고 있다. 이것은 또한 두 사전에서 복합 조사

통합’이나 ‘복합 조사’로 간주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한용운(2004)에서는 복합 조사를 ‘둘 이상의 조사로 이루어진 형식이 통시적으로 의미와 기능의 변화를 겪어 하나의 조사로 기능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 정의에 따라 현대 한국어에서는 ‘께서’, ‘로서’, ‘에서’만을 복합 조사로 인정하였다. 이규호(2007)에서는 복합 조사를 ‘분석 가능한 둘 이상의 형태소가 하나의 조사로 굳어진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불리가능성’, ‘교체가능성’, ‘의미의 특수성’의 판별기준에 따라 총 88개 항목을 복합 조사로 제시하였다.

3) 국립국어원 편(1999) 《표준국어대사전》이다. 앞으로 《표준》으로 줄여서 표기하기로 한다.

4) 조선어 학회가 1929년에 시작하여 한글 학회가 1957년에 완성하여 편찬한 사전이다. 앞으로 《큰사전》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란 개념을 기술하는 데에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다. 즉 일반적인 조사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만 복합 조사는 사전에 등재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한국어 조사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한국어 조사의 선행어는 명사나 명사구이어야 한다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김상대(1992)에서는 한국어에서 ‘조사+조사’ 구성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복합 조사’라는 용어의 사용이 부당하다고 지적하였다. 즉 복합어의 구성 성분은 어휘형태소이어야 하므로 문법형태소들 간의 결합인 복합 어미나 복합접사와 같은 구성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복합 조사도 구조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것으로 본다는 관점이다.

한편 김상대(1993)에서는 복합 조사의 생성 가능성을 배제하는 입장을 유지하지만 이론과 달리 실제로는 다음과 같이 복합 조사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예가 있다고 하였다.

(5) 가. 일본으로부터 돌아왔다.

나. 학생으로서 책임을 다 한다. (김상대 1993:25)

김상대(1993)에서 (5가)의 ‘으로’는 일반적으로 쓰인 ‘으로’가 가진 ‘방향’의 의미를 지니지 않으며 단지 돌아왔다는 ‘출처’를 나타내는 데 관여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일본으로부터’의 직접구성 성분 분석은 ‘[[일본으로]부터]’가 아니라 ‘[일본[으로부터]]’로 이해한다고 하였다. 즉 ‘으로부터’는 단순히 조사 ‘으로’와 조사 ‘부터’의 연속적으로 쓰이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의 조사로 굳어져 쓰인 복합 조사임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5나)의 ‘으로서’도 단순히 조사 ‘으로’와 조사 ‘서’의 결합 형식이 아니라 하나의 조사로 굳어져 쓰인 복합 조사일 가능성이 크다.

김동식(1996)에서는 조사들 가운데 한 체언에 연속적으로 결합되어 쓰인 경우를 ‘조사 구성’과 ‘복합 조사’로 나눴다. 그 중에서 새로운 조사를 형성한 것은 ‘복합 조사’, 문맥에서 통사적으로 결합되어 쓰인 것은 ‘조사 구성’이라고 하였다. 즉 조사와 조사가 연속적으로 쓰인 것은 새로운 조사를 형성된다면 복합 조사라

고 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본고는 공시적 관점에서 통사적으로 조사 뒤에 다시 조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조사로 쓰이지 못하지만 이들이 문법화 과정을 통해 (3)의 ‘만큼도’, ‘이나’, ‘보고’ 등처럼 하나의 조사로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 한용운(2004), 김진형(2000), 이규호(2007) 등도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다.⁵⁾ 다시 말하면 복합 조사는 성립 가능한 개념이다.

둘째, ‘만큼도’와 같은 형식을 복합 조사라고 부를 것이냐 합성 조사라고 부를 것이냐는 용어 문제이다. 앞에서 우리는 ‘만큼도’, ‘으로부터’와 같은 형식을 복합 조사라고 하였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복합어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한용운(2004:147 각주5)에서는 전통적으로 ‘복합’이라는 용어는 어휘형태소에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문법형태소에 적용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 조사란 용어가 사전이나 최근 논의에서 사용되고 있어 일단 이 용어를 그대로 쓰기로 한다고 하였다. 이규호(2007)도 이와 같은 입장이다.⁶⁾

한편 김진형(2000)은 합성 조사란 명칭을 선택하였다. 이 논의에서는 ‘합성 조사’ 혹은 ‘복합 조사’라는 개념은 공시적으로 조사들이 연속 통합되는 구성에 대하여 사용할 수 없지만 통시적으로 둘 이상의 요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조사처럼 인식된 경우에 대하여는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가 ‘합성 조사’란 명칭을 택한 이유는 ‘합성 조사’의 기원 형식을 모두 조사와 조사의 연속 구성에 국한해서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왜냐하면 단어의 분류 방법에 따르면 조사와 조사의 연속 구성으로 하나의 조사가 된 것에 대해서 ‘복합 조사’보다 ‘합성 조사’란 명칭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앞에서 논의한 대로 복합 조사의 기원 형식은 단순히 조사와 조사의 연속 구성이 아니다.

5) 각주 2를 참조

6) 이규호(2007:51)에서 계사 활용형이 조사화한 ‘인들, 이며’를 예로 제시하고 있다. 이 논의에서 이들 조사는 합성 조사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파생조사라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복합 조사라고도 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합성 조사, 파생조사, 복합 조사라는 개념이 둘 이상의 형태소가 굳어져서 조사가 된 구성을 설명하기에는 모두 적절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합성 조사’란 명칭도 그렇게 적절한 용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본고는 복합 조사란 용어를 선택하여 쓰기로 한다. 그 이유는 첫째, ‘복합 조사’의 ‘복합’은 ‘합성 조사’의 ‘합성’보다 가리키는 범위가 더 넓다. 앞에서 논의한 대로 복합 조사의 기원형식은 단순히 조사와 조사의 연속 구성이 아니라, ‘이’계 활용형, 용언의 활용형, 명사의 곡용형과 같은 형식도 있다. 따라서 ‘합성 조사’란 명칭은 ‘으로부터’와 ‘으로서’와 같은 형식의 일부만 국한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만약 ‘복합 조사’라고 부르면 그 기원 형식의 범위가 넓혀지므로 이들의 목록을 더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다. 둘째, 단어의 조어법에 따르면 ‘합성’이란 방법은 ‘파생’과 같이 ‘복합’의 하위 부류이다. 복합 조사의 형식 과정을 보면 ‘합성’도 아니고 ‘파생’도 아니다. 즉 복합 조사라고 하기도 정확하지 않고 합성 조사라고 하기도 정확하지 않지만, 그래도 범위가 더 넓은 ‘복합’을 택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의 입장에서 보아도 구성 형식이 일치하지 않는 ‘복합 조사’에 ‘합성’보다 ‘복합’은 더 어울린다.

이처럼 ‘복합’과 ‘합성’의 사용에 대하여 의견 차이가 있지만 둘 다 형태상 두 개의 형태소로 나눌 수 있고, 기능상 하나의 조사로 사용된다. 하지만 ‘합성’은 두 개 이상의 어휘형태소들끼리 결합되는 점과 문법형태소인 조사가 공시적으로 서로 결합하여 쓰이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서 본고는 ‘복합’과 ‘복합 조사’란 용어를 택해서 쓰기로 한다.

셋째, 복합 조사란 무엇이나의 문제이다. 즉 복합 조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최현배(1937/1980)에서 공시적으로 조사와 조사가 이어서 쓰인 것을 복합 조사라고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이것은 복합 조사가 성립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다. 통시적으로 조사와 조사의 연속 구성이 문법화를 통해 복합 조사로 형성될 수 있다. 그렇다면 복합 조사란 도대체 무엇이나, 복합 조사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이냐 등은 우리가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들이다.

한편 복합 조사에 대한 논의는 학자마다 다르다.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최현배(1937/1980)에서 복합 조사를 단순히 조사와 조사가 연속적으로 쓰인 형식으로

보았다. 한용운(2004)은 둘 이상의 조사로 이루어진 형식만으로 복합 조사를 엄격하게 한정하였다. 이규호(2007)에서는 복합 조사를 “분석 가능한 둘 이상의 형태소가 하나의 조사로 굳어진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복합 조사에 대한 초기단계의 논의는 단순히 두 조사의 연속 구성 형식으로 보는 입장에서 분석 가능한 둘 이상의 형태소가 하나의 조사로 굳어진 것을 보는 견해까지 나왔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학자들의 복합 조사에 대한 인식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즉 이들의 논의는 모두 복합 조사를 형태상으로 분석 가능하고, 기능상으로 하나의 조사인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 조사라는 개념에 대해 일치된 의견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며, 여전히 해결되어야 하는 숙제로 남아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3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넷째, 복합 조사와 복합어의 관계가 무엇이라는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복합 조사가 복합어이냐는 문제이다. 그리고 복합 조사의 ‘복합’과 복합어의 ‘복합’은 같은 것이냐는 문제이다.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본다. 단어의 분류 방법에 따르면 본고에서 논의하고 있는 복합 조사는 단일 조사와 대응된다. 즉 공식적인 입장에서 형태소의 수량에 의거하여 하나의 형태소로 구성된 조사는 단일 조사이고, 둘 이상의 형태소로 구성된 조사는 복합 조사이다. 이는 하나의 형태소 구성된 단어가 단일어이고, 둘 이상의 형태소로 구성된 단어가 복합어라는 일반적인 단어 분류 방법과 일치한다. 따라서 복합 조사는 복합어의 일부이다.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한국어 복합어의 ‘복합’은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형태소로 구성된 단일 조사와 구별하기 위하여 복합 조사의 ‘복합’은 ‘둘 이상의 형태소로 구성된(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이 구성된 형태소의 수량에 따라 명칭을 부르는 관점에서 보면 복합어의 ‘복합’과 복합 조사의 ‘복합’은 공통적으로 ‘둘 이상의 형태소’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복합어가 어휘적 단어 형성에 한정되고 복합 조사는 문법적 단어 형성이라는 점에서 서로 본질적으로 구분된다.⁷⁾ 또한 복합어는 단순히 공식적으로 형성될 수도 있지만 복합 조사는 공식적으로 형성될 수 없고 오랫동안 통시적

인 문법화를 통해 형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복합어는 단어의 형성 방법에 따라 다시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복합 조사는 이처럼 합성 조사와 파생조사로 나누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이규호(2007:50-51)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이유로 한국어에서 파생조사를 설정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첫째, 파생조사의 형성에 참여하는 조사는 접사의 자격을 가지고, 복합 조사의 형성에 참여하는 조사는 단어의 자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둘째, 조사가 접두사로 전성한다는 것이다. 셋째, 단어의 형성법의 규칙에 따르면 파생조사라는 개념이 언어의 실상을 왜곡한다는 것이다. 본고도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복합 조사란 개념의 성립은 가능하지만 파생조사란 개념의 성립은 어렵다고 본다.

이처럼 복합 조사의 ‘복합’과 복합어의 ‘복합’은 모두 같은 것으로 형태소 분석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하지만 복합 조사와 복합어의 형성 과정에서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복합어는 어휘적 단어 형성에 한정되지만, 복합 조사는 문법적 단어 형성에 한정된다. 또한 복합어는 공식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것이지만 복합 조사는 반드시 통시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⁸⁾

이상에서 우리는 복합 조사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복합 조사란 개념이 성립할 수 있지만 파생 조사란 개념은 성립할 수 없다. 그리고 단어의 일반 형성법에 따라 ‘복합’과 ‘합성’의 용법을 비교한 뒤 본고는 복합이란 단어를 선택하여 복합 조사의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또한 이러한 복합 조사는 둘 이상의 형태소로 구성된 복합어와 같이 공식적으로 둘 이상의 형태소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때 복합 조사의 ‘복합’은 복합어의 ‘복합’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다만 통시적인 문법화를 통해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

7) 익명의 심사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다.

8) 익명의 심사 선생님께서는 학교문법에서 단어가 아닌 어미도 복합 조사처럼 복합 어미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지적하셨다.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어떤 기원 형식은 통시적 과정을 통해 복합 조사로 형성된 것처럼 어떤 기원 형식은 통시적 과정을 통해 복합 어미로 형성될 수도 있다. 둘째, 어미가 단어이든 아니든 간에 ‘둘 이상의 형태소로 구성된다(분석할 수 있다)’면 ‘복합 어미’라고 할 수 있다고 본다. 복합 어미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서는 복합 조사와 복합어가 차이를 보인다.

3. 복합 조사 개념의 정립

여기서는 기존 논의에서 복합 조사 개념에 대한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복합 조사의 개념을 다시 확인해 보고자 한다.

학교문법에 따르면 조사도 단어이다. 복합 조사는 조사의 하위부류이므로 단어의 범위에 넣고 논의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복합 조사의 형성은 형태론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통시적인 문법화를 통해 형성된 복합 조사는 그 형성되는 과정에서 기원 형식은 형태적 특성에서뿐만 아니라 통사적 특성, 의미적 특성에서 모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적인 면에서 복합 조사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복합 조사의 개념을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형태론적으로 복합 조사를 살펴본다. 박재연(1998:37-38)에서 ‘통사 단위’⁹⁾는 그 내부 구조를 대상으로 형태소의 분석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문법적인 통사 단위의 하나인 어미도 그 내부 구조에 대한 형태소 분석이 이론상 가능하다고 하였다. 즉 어휘적 요소를 가지는 통사 단위인 ‘보름달’, ‘짓밟-’이 각각 ‘보름’+‘달’과 ‘짓’+‘밟-’ 등으로 분석되는 것처럼 문법적인 통사 단위인 ‘-다면서’도 ‘-다’+‘-면서’로 형태소 분석이 가능하다는 관점이다. 이에 따르면 하나의 조사로 쓰인 ‘로부터’도 ‘로’+‘부터’로 형태소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규호(2007)에서는 이와 같은 형식을 복합 조사라고 하였다. 본고는 복합 조사는 통사적으로 하나의 단위이지만 형태적으로 형태소 분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한편 기원 형식은 문법화를 해서 모두 형태소 분석 가능한 복합 조사로 형성된 것이 아니다. 문법화 과정에 따라 더 이상 형태소 분석이 불가능한 단일 조사로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9) 박재연(1998:37-38)에서 통사적 기능과 통사적 결합력을 모두 갖춘 요소만을 통사론의 단위로 인정하여 이를 ‘통사 단위’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6) \frac{\text{ㅅ} \# \text{ㄱ}}{\textcircled{1}} > \frac{\text{ㅅ}}{\textcircled{2}} > \frac{\text{ㅅ}}{\textcircled{3}}$$

(6)은 조사와 조사의 연속 형식이 문법화를 통해서 복합 조사로 형성된 후에, 다시 문법화를 거쳐 단일 조사로 형성되는 과정이다. ①단계는 속격조사 ‘ㅅ’과 의존명사 ‘ㄱ’이 이어서 쓰인 형식이다. 이 형식은 문법화를 해서 ②단계의 복합 조사 ‘ㅅ’로 형성되었다. 그리고 ‘ㅅ’는 계속 문법화 과정을 겪어 ③단계의 단일 조사 ‘ㅅ’로 굳어졌다. 이 중에서 복합 조사인 ②단계의 ‘ㅅ, ㅅ’는 형태소 분석이 가능하지만 ③단계의 ‘ㅅ’는 형태소 분석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복합 조사가 문법화 진행되면서 더 이상 구성 성분으로 분석할 수 없는 단일 조사가 된다. 따라서 복합 조사를 정의할 때 단일 조사와 구별해 주는 ‘분석 가능하다’란 기준을 분명하게 밝혀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라 문법화를 통해 형성된 조사가 공식적으로 형태소 분석이 가능하면 복합 조사이고, 형태소 분석이 불가능하면 단일 조사이다. 이규호(2007:48)에서는 현대 한국어 ‘같이, 부터, 예게서’의 통시적 변천 과정을 제시하면서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조사라도 그 형태소들을 분석할 수 있느냐 분석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이 복합 조사를 가려내는 데에 필요한 조건이 됨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논의한 대로 복합 조사는 공식적으로 형태소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통시적으로 형성된 하나의 단어이기도 하다. 이익섭·임홍빈(1983:115)에서 하나의 단어는 그 내부에 다른 단어를 개입시켜 분리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하나의 단어인 복합 조사도 내적 확장이 불가능하다.

(7) 가. 마음속에는 아들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다.

나. 단 며칠이나 쉬고 싶다.

(7) ' 가. 마음속에만은 아들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다.

나. *단 며칠이나 쉬고 싶다.

(7가)의 ‘에는’은 ‘마음속’이라는 추상적인 장소에 대한 강조를 나타내고 있고,

(7나)의 ‘이나마’는 ‘며칠’에 붙어 쓰여 시간에 대하여 불만스럽지만 아쉬운 대로 양보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의 용법을 확인하기 위해 (7)을 (7)′과 같이 바꿔 보았다. (7가′)처럼 ‘에는’ 사이에 ‘만’이 삽입되어도 문장이 여전히 성립하다. 뿐만 아니라 ‘에는’은 ‘에로느’, ‘에도느’와 같이 여러 요소가 삽입될 수 있다. 따라서 ‘에는’은 하나의 조사로 쓰인 것이 아니라 다만 조사 ‘에’와 조사 ‘느’이 이어서 쓰인 형식이다.

그러나 ‘이나마’ 사이에 ‘느’이 삽입되면 (7나′)처럼 문장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이나마’가 하나의 조사이어서 그 사이에 아무 요소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나마’는 ‘이-’+‘-으나마’로 형태소 분석이 가능하므로 복합 조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내적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기원 형식이 복합 조사임을 판별할 수 있는 첫 걸음이다.

또한 복합 조사의 기원 형식은 다양하다. 그동안 복합 조사의 기원 형식에 대한 의견은 주로 두 가지로 나뉘져 왔다. 먼저 복합 조사는 단순히 조사와 조사의 연속 구성에서 형성된 것이라는 견해와 다른 하나는 복합 조사는 조사와 조사의 구성 형식에서만 형성된 것이 아니라 계사 활용형, 용언 활용형 등 다른 형식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이 중에서 복합 조사는 단순히 조사와 조사의 연속 구성에서만 형성된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논의는 최현배(1937/1980), 남윤진(2000), 김진형(2000), 한용운(2004) 등이다. 최현배(1937/1980)은 조사와 조사의 연속적으로 쓰인 것은 복합 조사라고 하였다. 남윤진(2000)은 조사에 대한 계량언어학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복합 조사는 조사와 조사 간의 결합으로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김진형(2000)은 통시적으로 문법화를 통해 굳어진 조사들을 복합 조사로 인정한다고 하였으나 복합 조사의 기원 형식은 역시 조사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한용운(2004)은 둘 이상의 조사로 이루어진 형식만으로 복합 조사라고 보았다.

반면에 이규호(2000), 이정훈(2005) 등은 복합 조사의 기원 형식은 조사와 조사의 연속 구성에 국한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규호(2000)는 복합 명사나 복합 동사가 ‘명사+명사’나 ‘동사+동사’의 구성으로만 제한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합 조사도 ‘조사+조사’의 구성으로만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이정훈

(2005)은 ‘이’계 형식에서 온 조사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하였는데, 이들은 바로 복합 조사와 관련된다고 하였다.

본고는 후자와 같은 입장이다. 즉 복합 조사는 단순히 조사와 조사의 연속 구성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계사 활용형, 용언 활용형, 명사와 조사의 곡용형 등에서 형성되기도 한다고 본다. 이는 복합 조사의 형성 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복합 조사는 단순히 공식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통시적인 문법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기원 형식에 대하여 특별히 조사와 조사의 연속 구성이란 제한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그 기원 형식은 문법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형태적, 통사적, 의미적 면에서 변화가 일어나 복합 조사의 특성을 가지게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은 (3)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3나, 다, 라)의 ‘이나’, ‘보고’, ‘밖에’의 기원 형식은 조사와 조사의 연속 구성 형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복합 조사로 인정될 수 있는 형태들이다. 본고는 이러한 형식을 모두 포함해서 복합 조사로 형성될 수 있는 요소를 ‘둘 이상의 형태소’로 정하게 된다.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복합 조사는 형태상으로 세 가지 특성이 있다. 하나는 형태소 분석이 가능한 것이고, 하나는 내적 확장이 불가능한 것이고, 또 하나는 기원 형식이 다양한 것이다.

다음으로 복합 조사를 통사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복합 조사는 통시적으로 문법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법화 과정에서 기원 형식의 통사적 특성이 변화가 일어나 복합 조사의 통사적 특성이 형성된다.

(8) 가. 자장면을 먹고 나서 그릇을 대문 밖에 놓았다.

나. 우리는 기차가 출발할 시간이 다가오자 먼저 차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8)은 모두 ‘밖에’로 실현되어 있는 문장이다. (8가)의 ‘밖에’는 구체적인 장소 ‘대문’과 결합하여 명사와 조사가 이어져 쓰인 형식이고, (8나)의 ‘밖에’는 의존명사 ‘수’에 붙어 부정적 서술어 ‘없다’와 공기하여 하나의 조사로 쓰인다. 본고의

관점에서 따르면 이는 복합 조사이기도 하다. 복합 조사로 쓰인 ‘밖에’는 항상 뒤에 ‘없다’, ‘아니다’와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서술어를 요구한다. 이는 (8가)의 ‘밖에’와 차이가 난다. 명사와 조사가 이어서 쓰일 때 ‘밖에’는 문장의 용언에 대해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즉 복합 조사로 형성되면서 ‘밖에’의 통사적 결합 양상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9) 가. 그는 명예를 최고로 치고 사는 사람이다.

나. 서양 사람치고 키가 작다. (이상 한용운 2003:177)

(9)는 모두 ‘치고’로 실현되어 있는 문장이다. (9가)의 ‘치고’는 목적어를 취하고 있으므로 동사의 활용형이다. 하지만 (9나)의 ‘치고’는 명사 ‘사람’ 뒤에 분포하고 있으며 조사의 용법을 보여주고 있다. 본고의 관점에서 이는 또한 복합 조사이다. 일반적으로 동사의 활용형에서 문법화를 하려면 ‘동사 활용형>보조사>(격조사)’의 순서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⁰⁾ 즉 (9나)처럼 쓰인 복합 조사 ‘치고’는 (9가)처럼 쓰인 동사 활용형 ‘치고’에서 문법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즉 (9가)에서 (9나)까지 ‘치고’의 통사 범주가 바뀐 것이다.

이처럼 기원 형식이 복합 조사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통사적 결합 양상과 문법 범주에 있어서 모두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다음으로 의미적 측면에서 복합 조사를 살펴본다. 김상대(1993:18)에서 복합 조사의 의미는 대부분 단순히 구성 성분들의 원래 의미가 합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문법화를 통해 새로운 제삼의 의미로 변하게 된 추상적인 의미라고 하였다. 이는 복합 조사의 형성 과정에서 은유¹¹⁾란 문법화 기제와 관련된다. 문법화 과정에서 일어난 의미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은유에 의해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물리적인 것에서 심리적인 것’으로, 그리고 ‘객관적인 것에서 주관

10) 안주호(1997:215)에서는 이와 같은 순서를 ‘(의존)명사/동사>부사구>후치사구>보조사>(격조사)’로 제시하고 있다.

11) 그동안 은유의 정의에 대하여는 많은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성하(1998:220)에서 대개의 학자들은 은유를 ‘어떤 대상을 다른 종류의 대상으로 경험하는 것, 구체적인 것으로 추상적인 것으로서의 전이’라고 파악하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고 하였다.

적인 것'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다.

(10) 가. 우리 학교는 군청으로부터 가깝습니다.

나. 그녀는 그날로부터 꼬박 사흘을 밤새우며 소설을 써 내려갔다.

다. 이 종교는 나를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

(이상 《고려대》)

(10가, 나, 다)는 복합 조사 '로부터'가 쓰인 문장들이다. (10가)의 '로부터'는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어에 붙어 쓰여 그곳이 출발점이거나 시작점임을 나타내고 있고, (10나)의 '로부터'는 시간을 나타내는 선행어에 붙어 쓰여 '그 시간을 시작으로 하여'의 뜻을 나타내고 있고, (10다)의 '로부터'는 추상적인 선행어에 붙어 쓰여 어떤 행동이나 일 따위가 비롯되는 출처나 대상임을 나타내고 있다. '로부터'의 이와 같은 의미는 단순히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격조사 '로'와 시작점을 나타내는 보조사 '부터'의 의미가 합친 것이 아니다. 이는 '로'와 '부터'가 복합 조사 '로부터'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은유란 문법화 기제가 적용되어 의미의 변화가 일어나 구체적인 장소, 시간에서 점차 추상화된 것이다.¹²⁾

이처럼 문법화 과정에서 복합 조사의 의미는 계속 추상적으로 변해간다. 하지만 이들은 기원 형식의 의미 사이와 여전히 일정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어느 면에서 보면 복합 조사가 형태소 분석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하다. 만약 문법화 과정을 많이 거쳐서 형성된 복합 조사의 의미와 기원 형식의 의미 사이에 전혀 연관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다른 단어로 인식하게 되거나 단일 조사가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모두 형태소 분석을 할 수 없으므로 복합 조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의미도 복합 조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한편 조사나 어미와 같은 문법형태소를 정의할 때 주로 이들의 문법기능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복합 조사를 정의할 때 이상에서 논의한 의미적 특성은 참고로 사용하기로 한다.

12) 이성하(1998:224)에서 문법화 기제로 사용되는 은유에 대한 이동 방향은 [물체>공간], [공간>시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고는 복합 조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둘 이상의 형태소’는 문법화를 통해 복합 조사로 형성되는 기원 형식을 말해 준다. 복합 조사는 다만 ‘조사+조사’의 구성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이+어미’, ‘동사+어미’, ‘명사+조사’와 같은 형식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형식을 모두 포함해서 복합 조사로 형성될 수 있는 요소를 ‘둘 이상의 형태소’로 정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둘 이상의 형태소’를 복합 조사로 형성될 수 있는 요소로 정한 것은 ‘형태소 분석 가능한지 불가능하지 않은지’의 기준으로 복합 조사와 단일 조사를 더 쉽게 구분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문법화를 통해’라는 것은 복합 조사의 형성 방법을 가리킨다. 단순히 공시적 관점으로 복합 조사의 형성 과정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통시적인 문법화도 함께 이용하여 복합 조사를 정의하는 것은 보다 합리적이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복합 조사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참고적으로 제시하였던 복합 조사의 의미적 특성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복합 조사는 통시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이므로 의미적 변화는 문법화를 통해 확인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형태적으로 분석 가능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형태소 분석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복합 조사와 단일 조사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다. 즉 일정한 기원형식이 문법화를 통해 형성한 조사가 복합 조사인지 단일 조사인지를 구별할 때 이와 같은 분석 기준으로 한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분석은 형태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문법화 과정을 통해 하나의 단어로 굳어지면 통사적으로는 더 이상 분석하지 못한다. 하지만 형태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통사적으로 하나의 기능을 하는 조사’는 ‘둘 이상의 형태소’의 문법화 결과, 즉 복합 조사로 형성된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복합 조사는 하나의 조사이므로 통사적으로 하나의 기능만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원 형식은 문법화를 통해 복합 조사로 형성될 수 있지만, 만약 복합 조사로 형성될 수 있는 일정한 문법화 정도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들은 그대로 원래의 용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통사적으로 하나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 ‘둘 이상의 형

태소'의 문법화 결과를 이렇게 규정한 것은 복합 조사를 조사와 조사의 연속 구성, '이-'의 활용형, 동사의 활용형, 명사와 조사의 결합형 등 기원 형식과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4. 결론

본고는 기존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먼저 복합 조사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형태, 통사, 의미적으로 복합 조사의 특성을 살펴본 후에 복합 조사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논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그동안 기존 논의에서 복합 조사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통일된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복합 조사를 조사의 연속 구성 형식으로 생각하여 다루어 왔다. 하지만 이는 조사의 선행어가 반드시 체언인 것과 상치하므로 일부 학자들은 복합 조사란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본고는 복합 조사를 '둘 이상의 형태소가 문법화를 통해 형성된, 형태적으로 분석 가능하고, 통사적으로 하나의 기능을 하는 조사'로 정의하였다. 이때 복합 조사의 '복합'은 복합어의 '복합'과 같은 것으로 형태소 분석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때의 복합 조사는 기능상으로 하나의 조사이다.

그리고 통시적으로 문법화를 통해 형성된 복합 조사에 대해 일부 학자는 합성 조사라고 하기도 한다. 단어의 형성 방법에 따라 복합어는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누어지는데 조사에 있어서 파생조사가 존재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또한 조사들이 합성어처럼 공식적으로 결합하여 쓰일 수 없으므로 본고는 합성 조사가 아니라 복합 조사란 명칭을 택하기로 한다. 그렇지만 복합 조사와 복합어의 형성 과정은 서로 다르다. 복합어는 주로 공식적으로 형성되는 반면에 복합 조사는 통시적인 문법화 과정을 거쳐 형성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1. 단행본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편, 『한국어 대사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9.
- 국립국어원 편,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 남운진, 『현대국어의 조사에 대한 계량언어학적 연구』, 태학사, 2000
- 안주호, 『한국어명사의 문법화 현상 연구』, 한국문화사, 1997.
- 이규호, 『한국어 복합조사』, 한국학술정보, 2007.
- 이성하, 『문법화의 기제』, 한국문화사, 1998.
- 이익섭·임흥빈, 『국어문법론』, 학연사, 1983.
- 이희자·이중희, 『텍스트 분석적 국어 조사의 연구』, 한국문화사, 1998.
- 최현배,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1937/1980.
- 한글학회 편, 『우리말 큰사전』, 아카데미하우스, 1947-1957.
- 한용운, 『언어 단위 변화와 조사화』, 한국문화사, 2003.

2. 논문

- 김동식, 「현대국어 조사의 분류에 대한 연구」, 『한신논문집』 13, 한신대학교, 1996, pp.105-142.
- 김상대, 「국어의 후치적 특성에 대하여」, 『인문논총』 3, 아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2, pp.5-30.
- 김상대, 「복합조사에 대하여」, 『인문논총』 4, 아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3, pp.15-28.
- 김진형, 「조사연속구성과 합성조사에 대하여」, 『형태론』 2-1, 서울: 박이정, 2000, pp.59-72.
- 박재연, 「현대 국어 반말체 종결어미 연구」, 『국어연구』 152, 국어연구회, 1998, pp.1-140.
- 이규호, 「복합조사 연구의 기초 작업」, 『한국어문학연구』 11,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 한국어문학연구회, 2000, pp.277-294.
- 이정훈, 「조사와 활용형의 범주통용: ‘이’계 형식을 대상으로」, 『국어학』 45, 국어학회, 2005, pp.145-175.
- 韓龍雲, 「助詞連續構成과 複合助詞」, 『語文研究』 3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pp.145-169.

접 수 일	2014년 4월 30일
심 사 일	2014년 5월 10일~2014년 5월 20일
게 재 확 정 일	2014년 5월 23일

Abstract

The Establishment of Korean Complex Particle's Concept

Liu Qinghua

This article defines Korean compound particle through studying some related questions on modern Korean compound particle.

The structure that an antecedent following with more than two particles in sequence among modern Korean is called compound particle by most scholars. Obviously, the combining of particles goes against with the term, which was determined that the combination with a particle should be an from the perspective of Synchronic. So from the very beginning with the discussion of those questions, the article will illustrate the features of compound particle from different aspects, like morphology, syntax and semantics, etc. Based on it, an definition on compound particle will be concluded.

Keyword particle sequence, complex particle, single particle, morphological analysis, grammaticalization